

[**종합·해설**]

김승연회장 '보복폭행' 수사 물증찾기 주력

북창동 주점 CCTV 하드디스크 확보

전문가 동원 정밀 복구 작업·목적자 신원 파악

자택 압수수색 ... '청계산 증거' 발견 수사력 집중

물증 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소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의혹 수사가 새 증거 출현 조짐이 보이면서 부척 뒷심을 내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북창동 S클럽의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 등 물적 증거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보복폭행의 목적자 신원 파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김 회장 부자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근거 자료는 보복폭행의 마지막 현장인 북창동 S클럽의 CCTV가 녹화된 하드디스크. 당시 현장에서 김 회장 부자가 S클럽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흥기로 위협하는 등의 장면이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다면 '때린 사실이 없다'는 김 회장 부자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CCTV 녹화 내용은 이미 저장 기간이 지났으나 경찰은 전문가를 동원해 하드디스크 정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통신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동통신업체의 협조를

김 회장의 비서와 경호원, 운전기사 등 40여명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위치정보를 남겨받아 이들의 사건 현장 방문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특히 납치·감금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청계산 공사장에서 이들이 사건 당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의 '일리바이' 주장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경찰 자체 평가가 내려졌던 김 회장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끈다.

경찰은 자택에서 압수한 운동화·등산화·운동복·점퍼·승용차 안에서 나온 흥과 나뭇가지 등의 분석을 통해 김 회장 본인이 청계산에 직접 갔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물적 증거뿐 아니라 보복폭행 장면을 모두 본 제3의 목격자 추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청담동 G주점, 청계산 공사장, 북창동 S클럽 등 모든 폭행현장에 동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진담탐을 구성, A씨 추적으로 나섰다.

한편 경찰은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서울 잠곡동에 있는 한화그룹 본사의 회장 집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2일 오후 한화 김승연 회장 집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북경찰서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가운데)이 압수수색 진행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그 쪽에서 경찰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아 압수수색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압수한 문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압수분량은 서류봉투 1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수사지휘를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가운데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건의 진모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김혁규 "남북 당국자 메신저 역할 수행"

우리당 의원 5명 방북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을 단장으로 한 열린우리당 동북이평화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단이 2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방북을 위해 출국장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동북이평화위원회 소속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단(단장 김혁규 의원)은 2일 남북 경제교류 확대 및 공동협력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박4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김혁규·김종률·김태년·이광재·이화영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방북의원단은 남경우 농협중앙회 축산 대표 이사과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이 동행했다.

방북단은 평양 등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민화협 회장, 최승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북단은 임진강·한강 하구를 '공동평화구역'으로 설정해 32억의 모래를 채취하고 개성과 서울을 잇는

남북 대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개성공단 및 신항해권 경제특구 인력의 주거단지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혁규 의원은 "당이 무슨 권한으로 나서느냐는 힐난도 들리지만 중요

현안에 대해 남북 당국자 간 입장을 조정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방북의제가 경제부문에 집중돼 있다는 점만 봐도 정치적인 행보에 그쳤던 기존 정치인들과 방북과는 뚜렷이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선주자 행보 보면 가슴 짝 막히는 느낌"

盧대통령, 정치지도자 자질론 피력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요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 주목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정치지도자, 결단과 투신이 중요하다"는 글을 통해 "요즈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가슴이 짝 막히는 느낌이"며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주위를 기웃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투신해야 한다"는 것. "나섰다가 안되면 망신스러운 것 같으니 한 발만 슬쩍 걸쳐놓고,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될 성싶으면 나서고 아닐 성싶으면 발을 빼겠다는 자세로는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두번째 원칙으로 "저울과 계산기일랑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며 이른바 '정치공학적'인 정치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이 세 번째 원칙으로 '소신과 정책'을 제시한 뒤 "나라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네번째로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정당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당정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다섯째 원칙으로 "경선을 회피하려 해선 안된다"며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썩어 정치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찰청 '능장수사 의혹' 대대적 감찰

'보복폭행' 첩보 입수자 기초 조사 벌여

검찰총장 '의혹 없이 엄정 수사' 지시

경찰청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둘러싼 능장수사 의혹에 대해 대대적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입수해 서울경찰청에 보고했던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오모 경위를 상대로 1일 기초조사를 벌였다

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 경위로부터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 이후 첩보 입수, 기초조사 확인, 내사보고서 제출 등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일부터 서울경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 조사를 벌일 예

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내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됐던 이유, 맨 처음 첩보를 제출했던 서울청 광역수사대 대신 남대문경찰서가 사건을 맡게 된 경위, 외부나 상부로부터의 압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도 경찰에 대한 어설픈 수사과정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나섰다. 정 상명 검찰총장이 2일 경찰의 수사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병욱 서울중앙지검장에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가운데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건의 진모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통합신당모임 교섭단체 '위기'

이강래·우윤근 의원 등 6명 탈퇴

다음달 7일 독자신당 창당을 선언한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이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

이강래, 우윤근, 전병헌, 이종걸, 제노래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독자신당 창당에 반발,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사실상 통합신당모임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추

후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어 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해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져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2일 현재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 25명 가운데 백의종군을 선언한 6명을 제외하면 독자 신당에 참여할 의원은 총 19명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한 석이 모자란다.

신당 모임에서는 중앙당 창당대회 7일 이전에 20명을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을 수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3명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유규 대표와 김한길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 모 중진 의원에게 대표를 맡아달라며 신당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과연 탈당을 결행, 신당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신당 참여의 명분이 약한데다 신당의 정치적 폭발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 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매대학 South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진가를 느끼세요.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 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 TESOL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의만큼은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의는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습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 0505-313-1515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토마토 해커스 실전990

TOEIC강좌 퍼레이드!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호화막강 강사진! 열강! 역강!

TESOL박사 **최갑원**장

토익만점 11회 **조성훈**교수

토익 분석 전문가 **차준오**교수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습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암(癌)등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각 지역별 지점모집 **KSQB 한국줄기세포은행 광주지사** (062)373-3475 (세포치료) 아래 지정 병원과 상담하세요 www.koreacellbank.com

지정 병원 전남동부지점(순천,여수,광양) 061-743-3475 • 광주 **광진** 첨단하나산부인과 973-0910 이창의의원 953-7582 고운의원 951-9011 다나가정의학과의원 955-1888 소촌연합의원 943-5875 박가정의학과의원 941-0531 **남구** 한중가정의원 675-8075 장내과의원 225-1616 이성재이비인후과 366-2538 **동구** 본정형외과의원 236-3501 은누리가정의원 234-7571 **북구** 한솔내과의원 575-0075 성보의원 526-7772 양지정형외과의원 571-2277 삼각연합의원 251-0042 정수연합의원 062-266-7598 희망의원 573-5451 현대정형외과 529-1101 국면근피부과의원 573-9975 한빛신경외과의원 574-7582 유병진내과의원 269-3300 **서구** 퍼스트의원 384-0044 다나통증의학과의원 651-7578 한사랑통증의학과의원 365-7582 호암상부인과의원 681-0800 • 전남 **광양** 정외과의원 792-8561 **나주** 이필수의과의원 332-9800 **목포** 성모의원 242-5554 청송의원 274-7077 아름다운의원 274-8275 **순천** 금당병원 720-3500 모두편한내과 725-7568 **영광** 김기영내과 353-7521 **장성** 삼성의원 395-3800 김내과의원 393-7533